

포스텍 석사과정생 5명, 한국분말야금학회서 우수포스터상 수상

[2016년 04월 06일]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생 5명으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한국분말야금학회(KPMI) 춘계 학술대회에서 신한다이아몬드 우수포스터(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이번 대회에서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한 순 타이타늄 동맥류 클립의 기계적 특성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체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는 동맥류 클립을 순 타이타늄을 이용해 고압 비틀림 공정으로 제작했을 때 생체 재료로서 적합성과 기계적 물성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이다.





이번 연구는 김형섭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한세광 교수의 지도아래 주저자인 백승미 씨와 엄호용씨 (이상 지도교수 김형섭), 정호상씨(지도교수 한세광), 경북대 박재찬 씨가 공동으로 수행했다. 신한다이하 문드공업이 후원한 이번 우수 논문대회는 한국분말야금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포항=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출력하기](#)

[첨단기](#)

